

2023. 8. 1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2133-1920
야간경관기획팀장	최강욱	2133-1929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2133-1650
도로조명팀장	진종구	2133-1657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 서울시, '신행주대교' 야간조명 개선해 빛의 관문으로 재탄생

- 인천·강화 등에서 서울 진입 시 처음 만나는 교량 '신행주대교'에 LED조명 교체
- 주탑 및 거더 측면 부분에 서울대표색 연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
- 지나치게 화려한 연출·과다한 빛 절제, 친환경 조명으로 에너지·탄소 배출 절감

- 인천·강화 등 서쪽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서울의 첫 번째 교량 '신행주대교'가 빛의 관문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교량 측면에 서울을 대표하는 색의 조명을 설치,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빛과 경관을 품은 도시라는 첫인상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경기 고양~서울 강서를 연결하는 '신행주대교'에 다양한 빛 연출이 가능한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내달 설치에 들어가 이르면 '24년 말부터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볼 수 있게 된다.
- '95년 개통한 '신행주대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과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교량으로 길이 1.4km, 너비 14.5m, 주탑 높이 30m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04년 설치된 주탑 부분 경관 조명이 노후함에 따라 야간 경관, 가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서울시는 교량 가운데 우뚝 솟은 두 개의 '주탑',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거더(큰 보)' 측면에 서울대표색 중 ▲꽃담황토색 ▲서울하늘색 ▲단청빨간색 ▲한강은백색 등을 연출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설치, 계절·시간대별 다른 경관을 연출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내달 착공해 올 연말 주탑 부분 설치를 완료하고 주탑 부분 조명 연출 예정이며, 내년 10월까지 거더 측면 조명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시는 신행주대교와 행주산성·개화산·강서한강공원 등 주변 경관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화려한 연출이나 과도한 빛은 절제하고 노후 조명을 친환경 LED로 교체, 조화로운 조명 연출은 물론 에너지 및 탄소 배출 또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 교량에 문화 예술 요소를 접목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여 빛의 예술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강 교량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 시내 가장 서쪽의 관문을 담당하는 '신행주대교'가 이번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고, 내·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즐거움, 설렘을 전하는 상징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신행주대교 야간경관 이미지 연출(안)



**【꽃담황토색】**



**【서울하늘색】**



**【한강은백색】**



**【단청빨간색】**